



브라카의 소식들

BERACAH VALLEY NEWS

1138-22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본동 314-10 본부: TEL, FAX 423-2826 회장: TEL, FAX 554-2319 www.shinbiro.com\Telpa61

제2호
1998

선교회를 섬기면서

박신봉 목사

(선교회 이사장 · 울산 태화교회)



갈보리선교회는 십수년 동안 소리없이 그러나 끊임없이 사역하여 왔다. 19년 동안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외쳤고 선교회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음지 양지 구별없이 달려갔다. 이러한 아름다운 발걸음들은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께 찬양드리기를 기뻐하는 몇몇 신학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단원으로 헌신하며 목회자가 되어 교회의 목양자로 헌신하는 분들도 있다. 이들은 지금의 단원들처럼 아무런 보상도 없이 영혼구원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했던 분들이다. 이러한 선후배의 뜨거운 기도와 순수한 헌신으로 갈보리가 가는 곳마다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그 동안 청소년, 군인, 학생, 장년, 노인, 장애인, 죄수, 어린이 할 것 없이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한 신자,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굶핍 줄 모르는 투지로 훈련하는 선교회 회장 김승석 목사님의 헌신이 하나님을 감동하시게 함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목사들과 단원들과 후원회원들이 단합하여 현실을 바르게 분별하려고 하고 이 세대의 예언자적 사명에 충실하려고 했음이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그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게 한 바탕이 되었다. 참으로 갈보리선교회가 지금까지 항상 순수성을 잃지 않고 오직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역할 수 있었음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많은 모임들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순수성을 잃고 세속적인 명분이나 이득을 추구하여 세속화되곤 하였는데 갈보리선교회는 처음 사랑과 순수함을 변함없이 지속하여 발전해 왔다. 이것은 참으로 자랑할 만 하고 감사한 일이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조심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무장된 갈보리의 팀들이 복음을 들고가는 곳에는 언제나 모두 함께 큰

기쁨의 감격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되고 눈물로 참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났다.

약하고 소외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는 광경은 참으로 아름답다. 죄인의 몸이 되어 간혀있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감사하는 모습들에서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본다.

더우기 지금까지 갈보리선교회를 통하여 군선교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의 비전을 일깨워 가는 동안 반비례로 군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군선교에 큰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군선교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어 놀랍게 사역하게 하셨다. 월 2~4회 정도 군전도 집회를 하고 여름, 겨울 순회전도로써 연평균 약 3만여 명을 결신시키고 있다. 가장 왕성한 젊은이들만 이처럼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인가. 이 일은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 군목들과 군종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

이제는 국내외의 많은 곳에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 군부대,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유치원, 학교들이 부르고 있으나 그것에 다 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지금은 “21세기에 날개를 달고 날아가듯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상설 전도팀들을 운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하고 모일 때마다 부르짖고 있다. 선교회를 후원하며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단원들이여! 고된 훈련과 바쁜 일정이지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앞날은 진정 천국의 기쁨과 영광일 것임을 기억하기 바라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거룩한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랑과 찬사를 보낸다.

갈보리선교회 특별전도팀

제14차 국내 순회 전도보고

국내외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본회 회원교회와 후원회원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사랑과 격려로 아래와 같이 제14차 국내순회전도를 크신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기에 먼저 언제나 동일하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금번 집회를 마련해 주신 모든 교회와 기관 그리고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가. 일 시 : 1998년 1월 5일~1월 22일 (3주간)

나. 대상지역 :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다. 대상기관 : 낮시간-군부대, 특수기관 / 밤시간 - 일반교회

라. 특별전도팀 구성

1. 총지휘 - 김승석 목사(단장, 선교회장, 서울 충만교회)
2. 메시지 및 지도위원
 첫째주간: 김중남 목사(이사, 태안 파도교회), 박신봉 목사(이사장 울산 태화교회)
 둘째주간: 박신봉 목사(이사장 울산태화교회), 갈동수 목사(서울 동광교회)
 셋째주간: 박신봉 목사(이사장 울산태화교회)
3. 단원 : 김철우(간사, 충만교회), 박지연(간사, 충만교회), 장항석(엔지니어, 인천송의감리교회), 백주현(간사, 충만교회), 윤정화(회계, 충만교회), 심지은(충만교회), 김현성(충만교회), 구문희(울산태화교회), 임유리(충만교회), 박충인(울산태화교회), 원종석(충만교회), 이형석(충만교회), 이성훈(충만교회), 김경란(울산태화교회), 허은선(울산태화교회), 오현정(울산태화교회)

마. 집회 일정

	1주간(강원도)	2주간(경상도)	3주간(전라도)
주		1/11 울산 충현교회(이대수 목사)	1/18 장수 신전교회(오규환 목사)
월	1/5 양구 남면교회(이진양 목사)	1/12 울산 충현교회(이대수 목사)	1/19 부안 약곡교회(박종봉 목사)
화	1/6 3포병여단 379대대(박수권 목사) 양구교회(김평목 목사)	1/13 53사단 127연대(김동섭 목사) 울산 충현교회(이대수 목사)	1/20 31사단 96연대 1대대(김요섭 군종) 사랑의 집 - 장애인 교육개발원(강기년 목사)
수	1/7 강릉교도소(백삼채 소장) 강릉 강동교회(3개교회 연합(나황수 목사))	1/14 50사단 123보병 연대 5대대 (이종창 목사) 상주 금당교회(남철규 목사) (3개 교회연합)	1/21 35사단 106연대 2대대 (김학수 목사) 전주 양우리교회(김해수 목사)
목	1/8 제2307전투경찰대(윤태영 경감) 68사단 반석교회(김은중 목사) 주문진 제일교회(백종연 목사)	1/15 사회복지시설 우리집(장영자 전도사) 익성 도리원교회(박종철 목사(4개교회 연합))	1/22 31사단 신병교육대(김형섭 목사)
금	1/9 22사단 수색대대(한남석 목사) 고성중앙교회(한남석 목사)	1/16 대구 복음양로원(박성옥 원장) 대구 한마음교회(이승동 목사)	

순회전도 감상

어두움에 내리는 주님의 사랑



백주현(무용간사)

순회전도 세번째 날 은근히 기대되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았다. 그 이유는 오늘 강릉에 있는 교도소에 가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교도소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잦은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그래서 그 안 세계의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분명 다른 느낌이었다. 하얀색 높은 담장과 푸른 문 앞. 교도소는 들어가는 절차부터 까다로웠다. 모두 줄을 서서 한 번에 들어가고 기자채도 안으로 들어가서 내리게 되었다. 내가 처음 들어가 본 세계. 푸른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알 수 없는 삼엄한 기운이 감도는 것 같

았다. 집회장소는 2층 예배실이었다. 교도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몇몇 죄수들의 도움을 받아 짐을 운반하고 세팅을 했다. 그리 넓은 공간은 아니었지만 자리들을 모두 채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왔고 집회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가슴 왼쪽에는 번호표가 달려 있었고 얼굴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부터 험상궂어 보이는 사람까지 천태만상이었다. 그들의 얼굴을 통해, 눈빛을 통해 굳어있는 마음과 병들어 있는 정서를 들여다 볼 수 있었다. 나는 나와 어찌면 전혀 무관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시작 이후 내내 기도하며 임했다.

'천지창조'를 그린 드라마는 인간의 타락과 마귀의 방해를 실감 있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큰 깨달음이 되기를 바랐다. 드라마 이후 본격적인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가 전달되면서부터 그들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들 같았다. 눈을 크게하고 정신없이 빠져드는 천진함...세상에서 한 번의 실수와 잘못으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가정과 친구와 이웃을 떠나 이곳에 오게 된 사람들. 그들 가운데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 마귀 사탄의 계획적인 공격에 자신도 모르게 휩쓸리게 되었을 사람들...어떻게 보면 그들 앞에 선 우리나라 저 높은 담장밖의 사람들도 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의 최악된 근성과 악한

습성들을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영육의 병든 부분을 치료하고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처벌하여 가두어 놓는 이 세상의 법이나 제도, 교육, 정치...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은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총만을 필요로 하는 나약한 인간이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다. 결신기도를 크고 분명한 소리로 따라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은 우리와 함께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뜨겁게 찬양하며 집회를 마쳤다. 그곳을 떠나 나오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를 바라며 기도했다.

내가 본 갈보리선교단 집회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반 태 공장도사
(강릉 강동교회)

설 교 전. 울동찬양은 하늘의 천사가 내려 와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시는 12보좌의 찬양대가 동행하는 듯했다. 자매들의 의상이 무엇보다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힘있는 찬양은 그동안 갈급한 심령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는 시간이었다.

설교는 분위기에 맞게 가볍고 은혜있는 믿음의 설교였는데 부흥회식 설교인 듯 보였는데 갈보리선교단의 '주제' (목적)에 맞게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된다.

3번째(드라마). 이 공연은 처음 시작이 여자 나레이터의 음성이 분위기를 경건한 느낌을 가지도록 했다. 지금껏 학교 축제 때 보았던 것보다 '더욱' 감동적이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외에 영적인 부분까지 '터치' 한 것은 새롭게 나에게 도전과 나의 앞길에 구원의 중요성을 되새겨 주었고, 경쾌한 울동과 함께 박수치는 장면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했다. 특히 십자가 지기 전의 채찍 소리는 나의 마음을 찌르는 듯했다. 쇠망치 소리 효과 역시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조금도 부족없이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갈보리선교회를 통해 무한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회가 되시길 바란다.



너무 신선하고 좋은 느낌이...

조 진 오
(70R2BN 상병)

흔 히들 '열린 예배'가 하나의 비전이 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한 선교와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안다. 처음에 갈보리 선교단이 내가 속한 부대에 찬양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했는데 어떤 예배일까라는 궁금증에 의문감만을 느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이 흔히 '공연'이라 하는 찬양예배, 단순히 이런 차원에 머물지 않을까 내심으로는 조금은 불안감도 있었다.

예배가 시작되고, 주님께 나아와 찬양을 드리고, 갈보리 선교회 형제 자매들의 준비한 것들을 접했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겼다. 믿는 나 말고도 오늘 공연이라며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느낌과 예수께 나아올 수 있는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말씀이 좋았던 것 같다. 아주 쉬운 말씀, 아주 가깝게 다가온 말씀은 그 동안 내 가슴 속에 풀지 못한 갈등을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군인이라는 위치에서 절제된 생활 속에 조금씩 이기적이 되어가는 듯한 내 모습을 볼 때부터 내 마음 속엔 이름 모를 웅어리 하나가 생겼다.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무언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잘 섬기지 못하는 내 못된 아집이 있었다.

조금씩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무언가 해답을 얻은 것 같다. 먼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구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수를 따르는 이의 모습을 접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드라마를 보면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책과 영화도 많이 있었고 많이 보았지만 군에 입대한 이후 내게 새로운 느낌을 준다.

이곳 신교대에 수많은 찬양예배가 있었다. 열린예배 형식의 찬양단들을 통해 그때마다 큰 위안과 감사가 되었지만 갈보리선교단의 예배가 너무 신선하고 좋은 느낌이 들었다. 오늘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임하고, 이 계기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사람들이 생겼으리라 기대해 본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시나요

김철우

(편집위원장 · 차량 간사)

3 주간이라는 기간 동안 각지를 다니며 밤과 낮으로 전도집회를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번 제14차 국내 순회전도처럼 남한 전체를 한바퀴 돌며(제주도 지역 제외) 전도하는, 그것도 한 지방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그 지역을 종횡으로 오고가며 항상 시간을 다투는 중거리, 단거리 이동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잠시도 한눈 팔 겨를 없이 항상 바쁘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 정리하고 음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침기도회 시간에 늦지 않고 집합해야 하고 낮집회 장소에 시간에 맞추어 도착하느라고 증도에 급한 일도 참고 달려가야 하고 시작 시간에 맞추어 기자재를 설치하고, 옷 갈아입고 분장하고 집회에 들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늘 듣고 명심한 대로 혼신의 힘을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찬양과 위습 댄싱과 드라마와 모든 것을 쏟아야 한다. 그 집회 시간 동안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순간이다. 약 두 시간의 프로그램으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던 악한 영들이 물러가야 하고 심령이 열려지고 거듭나야 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하고, 구속의 확신과 기쁨이 임해야 하고 사람과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프로그램만으로 될 일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할 일기에 목사님들과 모든 단원들은 그 자리에 오기 전부터 그랬지만 집회시간 동안에는 온 정성을 기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만약 경험없는 단원이 메시지 시간에 옷을 갈아입으면서 잠담을 하거나 조는 것이 발견된다면 중벌로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특별전도팀을 가리켜 특공대라 말한다. 또 해외에 비행기를 타고 나아갈 때는 공수특전대라고 말한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일이 마치 특공대원들이 적진에 침투해 들어가서 순식간에 적을 무찌르고 아군들을 구출해 내거나 그 지역을 해방시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참으로 그렇다. 그러기에 우리 특별

전도팀의 모든 행위들 즉 잠자는 것이나, 음식을 먹고, 장비를 챙기고, 신속히 이동하고, 자기 책임을 완수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잘 참고 견디고, 실전시에는 반드시 승리하고, 오직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의 뜻에 충실해야 하고...이런 것들이 특공대원들이 피눈물나게 훈련하며 수행하는 것과 같이 우리 팀 대원들이 하는 행위들이다.

우리 특별전도팀원들은 이런 준비와 훈련을 해를 거듭해 가면서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 그 동안 언제나 가는 곳마다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러한 끊임없는 훈련과 참음과 희생이 그 뒤에 숨어있는 것이었다. 우리 목사님들과 단원들은 참으로 개인적, 인간적으로 많은 참음과 희생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저들은 인간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순수한 땀을 아낌없이 흘린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날이 갈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은 바로 기도다.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선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지금까지 계속하지 못하고 중단됐을 것이다. 마귀의 세력은 온갖 방법(사람, 사건, 교회, 환경, 건강...)으로 갈보리선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해 왔다.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준 것은 바로 끊임없는 기도였다.

그리고 기도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역이 능력있게 해 주었다. 우리가 연주하는 찬양이나 위습댄싱이나 드라마 등이 결코 만족할 수준의 작품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언제나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기도는 기도한 대로, 기도한 만큼 결과가 나타났다. 연약한 단원의 건강 문제와 까다로운 식성을 위해 기도한 대로 그 단원은 누구보다도 밝고 건강하게 사역을 했고 아무 음식이나 잘 먹고 소화했다.

어리고 경솔한 단원을 위해 기도하면 그 날은 무사했고 그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일을 저질렀다. 장비의 분실이나 고장이 없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더니 여지없이 말썽이 생겼다. 기도의 위력은 더 컸다. 눈이 많이 오고 추운 계절이라 여러 대의 장거리 차량 이동이 염려되어 우리는 매일 안전운행을 위해 기도했다. 첫번째 주간 전도를 마치고 상경해서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확인할 때까지는 장비를 실은 차량이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우리가 두 번째 주간 전도를 출발하기 전에 너무 마모되어 있었던 한 바퀴가 파열된 채 발견되었는데 타이어의 쇠줄들이 튀어나올 정도로 파열되어 있었다. 만약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 바퀴가 파열되면 어찌 됐겠는가? 생각하니 아찔했고 참으로 우리 주님의 세심한 인도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우리는 사전에 전도에 지장이 없는 일기를 주시도록 기도했다. 우리가 첫번째 주간 강원도를 전도할 때에는 간혹 눈이 오긴 했으나 전도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강원도 전도를 마치고 두 번째 주간 경상도로 옮기자 강원도는 폭설이 내려 우리가 전도하러 다녔던 도로들이 모두 파문히고 주민들이 고립이 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두번째 주간 경상도에서 전도할 때 역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경상도에서 마치고 세 번째 주간 전라도로 가려 하니 울산을 비롯해 큰 폭풍이 불어 그 지방이 큰 재난을 당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구름과 바람과 기압까지도 조정해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다 들어주실 뿐 아니라 전도를 그토록 좋아하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체험했다. 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전도의 특권이 주어지다니!! 이처럼 기쁘고 즐거운 보배가 어디 있겠는가? 할렐루야!

이제야 많은 것을 알았어요

박주희

(장수군 계남제일교회)

에 벤에셀의 하나님께서 갈보리선교단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찬양집회는 좃아 다녔어요. 찬양을 사랑하니까요. 저의 장래 희망은 복음가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고요. 갈보리선교단을 보고 느낀 것이 많네요. 이 갈보리선교회를 볼 때 정말 은혜가 넘쳐흘러요. 울동 한 동작 한 동작을 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손과 발을 만들어 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온 몸으로 찬양하라고 만들어 주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두가 최고의 작품인데 인간은 정말 최고의 작품인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까지 드라마로 된 것을 보며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놀라웠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감격과 믿음이 저에게 오는 것을 느꼈어요. 살아가는 동안 솔직히 주를 의심할 때도 있었으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가 정말 확실히 계신다는 것을 더욱 더 느꼈어요.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 생길 때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주심을 생각하면서 이제 감사를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주께선 저를 정말 너무 너무 사랑하시는 거 봐요. 저에게 이 시간을 통해 믿음 더욱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둠과 죄에서 헤매이는 것인데 그 곳에서 건져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해요. 아름다운 울동 속에 스며들어있는 은혜, 저는 그 은혜를 모두 모두 쪽쪽 뽑아 제 가슴속에 담았어요. 그냥 부르는 찬양, 이쁜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 진정한 찬양인 줄 알고 자랑스러워했는데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온 몸과 영을 다 해 하는 찬양이 진정한, 신실한 찬양이라는 것,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라는 것을요.

내 작고 미천한 몸과 영혼이 주님을 위해 살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주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어요. 힘든 일들 모두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깨끗이 버리겠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리고 정화 언니 같은 건강한 믿음을 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

김성심

(전주 양우리교회)

살 아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찬양이 시작되었을 때에... 화려함이 배어있는 옷자락들의 움직임만 보이는 그러한 밤인가?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린 드라마를 보며...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기도했던 그 청년의 모습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라는... 예수님의 간절함이 내 마음에 강하게 스며들더라고요. 후에 김 목사님의 강한 복음 메시지가 왜 그리 좋고 은혜가 되던지... 함께 참석했던 두 자매에게 평소에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시간을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급하심과 섬세하심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바로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찬양, 울동팀으로 잠깐 사역함이 있었습니다. 찬양, 울동이 평소의 삶 속에 있었지만 남들처럼 항상 졸업 후에도 사역하고 싶었지만...용기가 없었는지 아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적은 믿음 때문이었는지...찬양 울동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으면서도 아쉬워만 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제 21세기를 책임져야 할 우리 양우리교회 중·고등부에게 제가 알고 있던 작은 몸짓을 전수하면서... 머지않아 우리 아이들도 갈보리 선교단체처럼 사역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부럽습니다. 청년의 때에 사역하는 여러분의 용기에... 그리고 순간 순간 섬세하게, 다정하게 느낄 거라 믿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참 부럽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제가 살고 있는... 머물고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매일 매순간이라고는 약속드리지 못하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살롬!



나도 봉사하고 싶습니다

할 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갈보리선교회의 찬양집회때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그 찬양집회를 통해 제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진행되는 중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비록 교도소란 곳에 들어왔지만 제 삶을 포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보다 분명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않은 수용생활속에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많습니다. 출소되면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선교팀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선교단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언제까지나 계속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찬양이 무엇이며 무엇을 뜻하는지도 몰랐었는데 여러분의 찬양집회를 통해 진정한 찬양이 무엇이며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출소 날짜는 4월 15일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끝으로 건강 유의하시고 선교활동에 열심히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갈보리 선교단원 임원과 모든 여건에 도와 주시고 늘 건강하도록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릉교도소에서 원채준 올림



유치장 전도 소감문

복음 그 자체가 능력

박지연

(유치장 전도 B팀장)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오후가 되면 갈보리의 젊은이들이 가는 곳이 있다. 덕수동 돌담길도 아니요, 멋진 음악이 흘러나오는 카페도 아니다. 그곳은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가기전에 잠깐 머물게 되는 경찰서 유치장이다. 우리 팀원들은 전도폭발 훈련을 받아 평소에도 공원이나 집을 방문하여 전도하고 있다. 그러나 강간, 사기, 절도, 폭력 등의 죄목으로 붙잡혀 온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도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처음에는 '웬 젊은이들이 예배를 인도하러 왔나' 하며 눈을 흘기고 시큰

둥하게 앉아 있다가 "당신은 만약 오늘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갈 확신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긴장하고, "그렇다면 천국에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착한일"이라고 대답을 한다.

그러기에 유치장안에 갇혀 있는 자신들은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 받는 방법을 제시할 때 어느덧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요청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정성스럽게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 냉랭하고 딱딱한 심령들이 점순케 되고 순종하는 일이 어찌 우리 인간의 말의 능력이라 할 수 있겠는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앞에 우리 자신들도 머리를 숙일 뿐이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에 더욱 더 충성되게 하자고 우리 대원들은 서로 다짐하면서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경찰서 문을 나섰다.

표제명 소개

여호사밧왕이 이방동맹군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송하며 나갔다. 하나님은 복병을 보내 적군들끼리 치게하여 진멸케 하셨다. 유다군대는 한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였는데 그곳이 브라가 골짜기다 (대하20장, 브라기는 송축의 뜻).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선교회도 각 팀들이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와 춤과 드라마와 악기연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국내외의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복된 길로 이끌게 하시므로 그 모든 소식들을 한 데 모아 널리 알리면서 하나님께 더 큰 송축을 드리고자 이 소식지를 「브라가의 소식들」(Bracah Valley News)로 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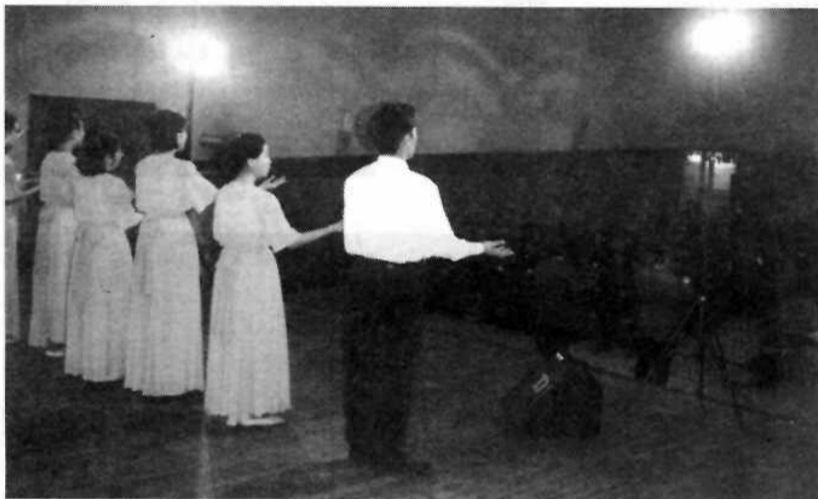
98년 1월 어느 군부대에서

먼 저 오늘 이곳으로 갈보리선교회 단원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갈보리선교회가 어떤 것인지 궁금했었는데 오늘 이 공연과 팸플릿을 통하여 조금은 알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 대대에 여러 찬양단과 선교단체에서 위문공연을 왔었지만 모두가 찬양을 위주로 모든 공연을 진행하였으나 이번 만큼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온 몸을 다하여 찬양하며 연기하는 모습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소리나는 악기'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군생활 동안 많은 형제들이 믿음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곳 저곳에 믿음 잃은 자들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회가 되시길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앞 길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준비하신 목사님과 단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처 음 BEGINNING 무대는 인상적이었다. 천사를 상징하는 듯한 자매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무대가 좀 협소한 관계로 연기에 좀 불편이 있는 듯 했지만...그리고 남자 형제들과 함께 하는 무대, 노래와 율동, 관람하는 장병들을 보니 모두 한마음이 되어 같이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하루살이가 모르는 내일, 메뚜기가 모르는 내년이 있듯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영혼이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나왔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도의 말씀이었던 것 같다.

사 랑하는 갈보리 선교단원 여러분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으로 귀 선교단에 문안드립니다. 오늘 있었던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아름다운 율동과 드라마 그리고 예리하게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지적해 주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를 비롯해 저희 포성교회에 참석했던 여러 형제님들도 같은 은혜를 받아 누렸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교의 사역으로 몸소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은 기도로나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제대 후에 공부도 더 하고 돈도 좀

더 벌고...하며 제 자신의 것을 위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오늘 목사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군에서 온 편지

이용철

육군 제5776부대 포성교회 대대군종

라"라는 말씀을 통해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대 후에, 공부를 더 하고, 돈을 더 모으고...가 아니라 이제부터 지금 제게 주어진 곳에서 맡겨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외로움에 지쳐 울고 있는 주위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오늘 받은 은혜처럼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토록이나 아름답던 갈보리선교단의 귀하고 복된 발걸음처럼요. 부디 남은 선교 일정을 주님의 은총 안에서 무사히 마치시길 바라구요.

새해에는 더욱 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승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드라마.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인간들의 무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박는 모습, 그 전에 예수님께서 피땀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드리시는 모습이 정말 가슴깊이 다가왔고 이때 미련없이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정말 존경스럽고 위대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생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한 복된 삶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믿는 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뭔가 가르쳐 주는 말씀이었다.

육군 제8332부대 1대대 상병 이진호

다시 태어난 나



구 문 회

(신입단원, 태화교회)

내가 갈보리 선교단과 함께 순회집회를 떠나는 지 나흘째 되는 날이다. 그 동안 집회를 참석하면서 느낀 점이 많았다. 먼저 갈보리 단원들의 모습이 활기차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너무나 화기에애함을 느꼈고 힘든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언제나 어디서나 웃으며 지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순회전도를 준비하며 연습할 때 한 주정도만 할 생각으로 왔었는데 둘째날(6일) 집회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가책을 많이 느꼈고 생각을 고치게 되었다. 이번 주가 끝나도 순회집회를 계속 해야겠다고 결심이 섰고 내 마음속에는 또 다른 비전과 목표가 세

워졌다. "전도". 어렵게만 생각 했었던 일이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많이 가졌었지만 지금은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돌아봐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



있는지, 정말 한심하기만 했지만 지금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지금 문득 그 말씀이 생각난다.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집회 때마다 외치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은 전도기간내내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이제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언제나 갈보리 선교단원들과 목사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기도하겠다.



떨림, 감동, 깨달음

원 종 석

(신입단원 · 충만교회)

나는 갈보리 선교단 중에서 가장 어렵다. 또한 이번이 처음 동참하는 순회전도이기 때문에 나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출발할 때부터 긴장되는 마음, 떨리는 마음을 형, 누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집회 전의 떨리는 마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집회시간이었다. 무대의 조명을 받으며 대원들이 한 사람씩 무대에 올라서기 시작했다.

드디어 나도 무대에 올라섰다. 수많은 사람이 앉아서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몇몇 잡담하는 사람들도 보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찬양에 귀를 기

울이며 보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 이 먼 길을 왔고 지금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많은 연습과 노력을 한 것이구나 생각하니 이 집회가 소중히 여겨졌다. 나는 힘을 다해 찬송하고 울동했다. 목이 쉬었다. 그래도 나는 계속 불렀다. 목사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다.

목사님의 말씀은 들을 때마다 마음에 많이 와 닿는다. 아마 앉아서 듣는 사람들 모두 나와 같은 느낌일 것이다. 집회 중의 드라마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이 드라마는 언제 보아도 감동적이다.



정말 예수님과 복음과 인간의 관계를 절실히 느낄 수 있다. 집회가 끝날 때마다 나는 정말 새로운 기분이다. 아마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마음도 나와 같을 것이다.

이번 순회전도를 하면서 난 많은 것이 변화된 것 같다. 경건생활 시간도 더욱 늘어났고, 무엇보다도 전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앞으로의 생활에서도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전도하기에 힘쓰는 내가 되어야겠다.

여 러분들의 몸짓과 아름다우면서 진정한 찬양이 이제껏 너 무나 교만했던 저의 가슴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선 저에게도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소리치라고 욕하라고 주신 목소 리가 아닙니다. 주님께 기도하라고, 찬양하라고, 목소리로 인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께 받았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갈보리선교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 울산충현교회 자매님

우 리교회를 찾아주시고 기쁨으로 가득차게 이끌어 주신 선 교단 언니, 오빠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목사님의 뜨거 운 설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빠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 나 좋았을까? 분명 우리 아빠도 기뻐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 을 텐데...저는 이 시간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 약곡교회 중고등부 회원

이 제까지 사회에서도 군에서도 많은 찬양팀과 사역자들이 내 곁을 지나갔습니다. 모든 팀들이 같을 거라고 생각했 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으로 그분을 찬양함이 아름답고 신 기했습니다. 워십 사이 사이 마다의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스럽고 부드러운 연결구 역할을 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드라마는 우리들 에게 쉽고 재미있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

각에 있지만 알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일부를 보는 것도 같았 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사소한 진리까지도 대변해 주는 것 같습 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수색대대 군중

화 사한 울동으로 시작한 울동팀의 울동이 우리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무엇보다 목사님의 핵심적인 복음 메시지가 우리들의 근본적이고 깊은 문제들을 짚어주고 우리들의 심령을 울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드라마화한 극은 음향효과와 함께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 군부대의 형제님

예 수의 일생을 보여준 것은 물론 평소에도 알고 있었던 것 이었지만 '감격'이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 씀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목사님 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나의 잘못된 생활을 돌아보고 더욱 기도와 전도에 힘쓰기로 생각했습니다. 또 전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렸겠지" 생각했던 것이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 군부대 조경현

선교사 소식

싸이판에서 온 편지

준 경하는 갈보리선교회 회원님.

그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아래 목사님들과 모든 회원님 들과 교회가 평강하시리라 믿습니다. 뜨거운 기도와 사랑의 후원 으로 감사하면서 사역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유 명절, 구정을 맞아 한인들은 이곳 저곳에 모여 고향을 그리며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IMF 사태로 위축된 한 국을 바라보면서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초교파적으로 선교사 8가정이 모여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 곳의 형편은 지난해 10월 18일과 25일에 큰 태풍으로 인하여 싸이판 지역 가옥 830채가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그 태풍으로 인하여 저희 교회 중국선교사 숙소가 지붕 채 날아가 버 리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교회와 많은 도움의 손길로 선교사관을 새로 신 축하였습니다. 이곳 태평양 연안은 11월부터 12월에 큰 태풍이 자주 오는데 금번에 강타한 태풍은 광에는 지대한 영향이 있어 2 억 달러 이상 손해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해 8월 6일 대한항공기가 추락하면서부터 태풍으로 인한 어려움과 한국의 IMF의 한파로 상황은 더욱 곤두박질 된 지경입

니다. 지난 해 같으면 관광객이 북적대던 이곳이지만 대한항공기 는 취항을 포기하고, 아시아나 항공기 역시 싸이판과 광을 경유하 며 한 대로 취항하나 두세 명 정도 손님이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그 많던 관광 가이드들은 수백 명이 철수하였고, 수많은 식당 은 문을 닫았고, 관광업소들과 함께 큰 어려움을 겪는 교민들의 실태입니다. 지난 해 저희 교회에서도 7가정이 한국으로 철수하 였는데 생계의 위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동남아 전역이 큰 어려움 이 있음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듯하여 옆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한국 뿐 아니라 각 선교지에도 다 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교회도, 지역도, 사회 도, 국가에도 변화와 축복을 아울러 가져올 것을 확실히 믿기 때 문입니다.

목사님들 가정의 평강하심과 온 후원회원님들과 기도회원님들 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주의 손길을 바 라면서 싸이판 남단에서 드립니다.

여두성, 황란희(윤미,성환) 선교사 드립니다

필리핀에서 드리는 기도편지

할 렐루야! 그간도 주의 성은 중 평안 하셨습니까? 요즘은 정말 안녕하 시냐는 인사가 더 실감이 많이 납니다. 어제는 한국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저희 선교부의 한 가정이 조기안식년이라는 형식으로 한국으로 철수하였습니다. 선교사의 가족을 공항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아픈지 흐르는 눈물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한국경제의 어려움과 환율의 폭락은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였고 이것은 또한 우리 모든 선교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금년들어 두 가정이 안식년의 형식을 빌어 떠났으며 또 계속하여 안식년을 떠나기 위해 신청한 선교사도 세 가정이나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더 많은 선교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선교사들 뿐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다듬어진 한국교회와 한국선교사들을 우리 주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계속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금년 한 해 부족하지만 필리핀 선교부의

대표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하필 어려운 때 지부장을 맡게 되었다고 위로도 해주십니다. 또 저도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 선교부도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선교부의 사무실을 문 닫고 일단 저희 집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따라서 사무실 직원들도 그만 두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저와 아내가 선교부의 직원 노릇도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선교부 전체 비용이 월 \$700 정도 절약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도 지난 달 12월 29일보다 싸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방한 칸짜리 아파트인데 베란다가 비교적 넓어서 아이들 방으로 꾸며줄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서울을 벗어난 경기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월세가 약 \$170 정도 절약이 됩니다. 따라서 전화번호도 바뀌었습니다. 새 번호는 658-2715입니다. 최근의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월 \$2,000-\$3,000씩 오던 선교비가 이제는 절반 수준인 \$1,000-\$1,500로 줄어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총회 선교부에서 발송한 공문에도 자립선교에 대한 연구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특별한 대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국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또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갈보리선교회와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 이사하는 와중에 전학을 해야 하는 둘째아이 에스더는 전학비도 절약할 겸 새학기까지는 HOME SCHOOL로 엄마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 교회의 모든 사역들도 일단은 약간 주춤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모든 사역은 중단기로 하였고, 교회건축 예정이었던 빠라나케 교회도 부지구입을 잠정적으로 유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부지 구입을 위해 온 교우들이 한 사람당 하나의 저금통 갖기 운동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성도들이 동전을 모을 수 있는 저금통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액수야 크지 않겠지만 그 정성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저들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여 봅니다. 다음번 소식은 반갑고 소망이 있는 소식들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강건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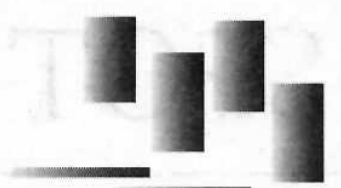
■기도제목

1. 고국과 필리핀의 경제안정을 위해
2. 각 교회의 부흥과 자립을 위해
3. 현지인 동역자들과 선교사의 영적 충만을 위해
4. 어려움에 처한 모든 한국인 선교사들을 위해

필리핀 전봉주 · 한자경 선교사 올림



추진 중에 있는 주요 사업들



필리핀 순회전도 - 제12차 해외순회전도

IMF 경제 여파로 인하여 금년 1월에 예정이었던 제12차 해외순회전도(필리핀 순회전도)가 연기되고 동 기간 중에 제14차 국내 순회전도(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순회전도)를 실행하였던 바 연기되었던 필리핀 순회전도를 계속 준비하고 있다. 속히 경제가 안정되고 환율이 정상화 되도록 모든 회원님들의 간곡한 기도가 요청된다. 그리고 이미 답사 완료된 베트남과 계속 요청이 오고 있는 북방국과 남미국가들 순회전도를 위해서도 준비하고 있다.

제4프로그램(D PROGRAM) 제작

국내외 전도집회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특별전도팀이 기존의 3개 프로그램 외에 별도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 새 프로그램은 운영방식면에서도 기존 프로그램과 성격이 다를 것으로 기대되는데 완성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준비와 연습이 필요하다 제작진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프로그램을 위한 지혜와 재능과 영감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완성단계

그 동안 여러 가지 분주한 사역들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팀(팀장: 김철우 간사)이 틈틈이 제작활동을 전개하여 좀 더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분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항상 기다리고 있으며 인터넷 전용 컴퓨터와 업무용 컴퓨터 체계를 분리하는 일은 완료하였다.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제작중

논산훈련소 집회 중에 만난 한광석 집사님은 사진과 비디오 전문가로서 훈련소 집회에 관한 중요한 사진, 비디오 제작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본회 특별전도팀의 집회 실태를 편집한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와 대형 사진을 제작해 주시기로 약속하여 제작 중이다. 그 동안 항상 고대해 오던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의 제작으로 더 많은 전도의 장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집회 시스템 준비

특별전도팀의 전도집회를 더욱 효율화 할 수 있는 차세대 집회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기획팀은 멀티미디어 기술 도입을 위해 착실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이 필요한데 허락해 주시는 대로 장비를 구입하기로 하고 우선 운영기술과 요원 양성에 정성을 모으고 있다.

상설 특별전도팀 구성

본회 특별전도팀의 전도집회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군전도사역에서의 역할이 크게 요청되고 있는 바 그동안 공휴일과 월 1~2회의 주일 저녁시간을 통한 사역으로는 도저히 소화해 낼 수 없어 평일 저녁에도 사역할 수 있는 상설팀의 구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상설팀의 구성은 모든 면에서 전문적인 질적향상도 기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단원 한 사람이 선교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교회와 개인들이 재정적으로 돕는 일이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이 구체화되도록 모든 회원교회와 독자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동참을 바란다.

주께서 쓰실 물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전도에는 사람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기자재)과 물품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선교회의 전도사역에 필요한 것들이 있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이 물건들을 헌납해 주신다면 군내외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으로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1. 목사님 설교용 무선마이크 1조(70만원) 및 단원용 무선마이크 5조(조당 60만원)
2. 무전기 1대(70만원)
3. 모니터 스피커 2개(80만원)

다음의 성물들이 구비되었습니다

1. 남성단원용 및 목사님용 한복 의상(7벌)
2. 신형복사기(충만교회와 공동으로 할부구입)
3. 멀티케이블(대강당용 30M 8P케이블)
4. 비디오카메라 삼각대
5. 메시지용 OHP 필름 제작
6. 선교회 활동 홍보용 대형 칼라 실사 사진, 대형 휘장
(울산 태화교회 김명성, 김정심 집사 헌납)

SPOT NEWS

남성단원 한복유니폼 제작

그동안 단원들의 유니폼(연주복)으로 사용하던 A.B.C 유니폼이 추운 겨울에는 착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한 우리 고유 의상인 한복 유니폼이 국내외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우선 어느 성도님의 배려로 여성 단원용 한복 유니폼이 아름답게 제작되어 작년 초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남자 단원용 한복 유니폼이 없었다. 그러던 중 작년 말에 남성용 한복 유니폼이 개량형으로 멋있게 제작되어 지난 순회전도 때부터 남녀 단원이 한복 유니폼을 착용하고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었다. 특히 여성단원들은 남성용 한복이 더 예쁘다는 시기(?)를 보일 정도였다.

선교회 휘장 개작, 대형칼라실사사진 제작 헌납

특별전도팀이 전도집회 때마다 무대 전면에 산뜻하게 부착하는 휘장을 울산 태화교회(김병성, 김정심)집사님이 보다 크고 정확하게 제작하여 헌납해 주셨다. 그래서 그런지 무대가 훨씬 환해져 보였다. 뿐만 아니라 집회광경을 특수 칼라사진으로 대형으로 제작하여 헌납해 주셨다.

앞으로 사무실을 찾는 분들은 커다란 멋진 장면을 보시게 될 것이다.

논산훈련소와 하사관학교 전도집회 정례화기로 함

우리나라 국군 훈련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논산훈련소와 군 장기복무자이며 실무간부를 길러내는 하사관학교 전도집회를 96년 말부터 해오던 중 해당기관의 군종 책임목사님들과 협의, 98년부터는 3월, 6월, 9월, 12월 중으로 정례화하여 집회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 집회들을 통해 장래 군 전도의 간성들과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모든 분들의 뜨거운 기도지원을 바란다.



회원 소식

본부 단원 입단

충만교회(김승석 목사)에서 교사와 성가대원 등의 직분을 맡아 열심히 사명감당하며 말씀, 기도훈련을 받던 심지은(대3) 자매와, 원종석(고1) 형제가 새로 입단하여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들의 새 출발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울산 단원 입단

울산 태화교회(박신봉 목사)의 구문희(고3), 박충인(고2) 형제가 특별전도팀의 울산 단원으로 입단하여 순회전도시와 특별집회 때 활동하게 되었다. 두 형제는 지난 1월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의 3주간에 걸친 지방순회전도 시에도 실수없이 맡겨진 부분들을 모범적으로 잘 소화해 내었다. 앞으로도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활발히 전개되어지기를 기도한다.

군종이 된 군 전도자

갈보리 단원으로 열심히 활동하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입대하면서 군 전도자로 파송받아 간 이성훈 형제가 대대군종으로 임명되었다. 군 전도자 겸 군종으로서 군복음화에 더욱 주력하여 많은 결실을 맺도록 매일 기도지원을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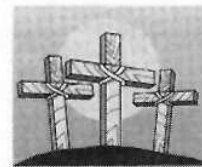
졸업

그 동안 서울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던 주정림 단원이 97년 12월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했다. 98년 2월엔 서울 미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김현철 단원, 서울 아주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원종석 단원이 졸업을 했다.

본회의 이사님이신 우종하 목사님(신제주 제일교회)은 총신대학 목회대학원 목회학 석사과정을 수료하셨다.

교육관 신축

울산태화교회(박신봉 목사)는 그 동안 기도하며 준비해 오던 교육관과 어린이 집 건축을 시작했다. 모든 일이 마쳐지기까지 아무런 어려움이나 사고가 없도록 모든 회원님들의 기도를 바란다.



국내 사역

1. 경찰서 유치장 전도

토요일 오전 또는 오후 시간에 격주로 경찰서 유치장을 방문하여 찬양, 워십댄싱, 간증, 말씀, 간식 등으로 전도하는 사역. 현재는 서울에서 2개팀, 대전에서 1개팀이 사역중임.

2. 장애인 전도

월요일에 격주로 정해진 장애인 수용처를 방문하여 청소, 빨래, 목욕시키기 등 봉사와 기초 성경공부, 사랑의 교제 등으로 전도하는 사역. 서울에서 1개팀이 사역중임

3. 특별전도팀 전도

군부대, 중·고·대학교,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등 특수기관 또는 교회와

지방 순회전도를 위해 워십댄싱, 드라마, 판토마임, 말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훈련, 조직된 팀으로 평상시에는 모든 공휴일과 월 2회 주일 오후 시간에 사역하고 여름, 겨울 방학 기간 중에는 지방 순회전도를 함. 공휴일에는 주로 낮과 밤 2회에 걸쳐 군부대 전도집회를 하고 순회 전도시에는 낮에는 각종 기관에서, 밤에는 각 교회에서 전도집회를 함.

속해서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음. 해외순회전도시에는 현지 언어로 모든 것을 수행함.

2. 선교사 양성 및 해외선교사 지원

선교사 후보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일과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를 지원하는 사역. 현재 일본, 필리핀, 싸이판, 중국 등 6명의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음.

단원훈련사역

1. 정기모임 훈련

매주 수요일 저녁에 본부교회(충만교회)에 회집하여 영성훈련과 각종 사역연습을 함

2. 7월과 12월, 1월에는 국내외 순회전도를 대비하여 합숙하며 훈련함

해외사역

1. 특별전도팀 해외순회전도

여름, 겨울 방학 기간 중에 각국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2~3주간 동안 각국 현지인들과 교포들을 대상으로 순회전도함. 지금까지 11개국에서 사역하였고 계



정기모임

매주 수요일 저녁은 본부교회(충만교회)에 모여서 수요기도회를 드리는 동시에 갈보리 선교회 단원들의 정기모임이 있는 날이다. 기도회 시간에는 단원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말씀과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하절기에는 7시30분, 동절기에는 7시에 모임을 가지며 기도회 후에 간단한 다과와 함께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지며 단원생일이나 신입단원 환영식 등의 순서를 가지게 된다. 그 후에 사역실무를 위한 훈련과 연습에 들어간다. 현재 갖추고 있는 A, B, C PROGRAM은 찬양곡과 율동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원들은 연습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라는 인식속에서 정성스레 훈련에 임하고 있다. 또한 드라마 및 판토마임을 위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해 내기 위한 연습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역사하는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항상 성령충만함을 주시도록 모든 회원님들의 기도지원을 바란다.

갈보리신교회 특별전도팀 집회목록

국내 집회

가. 군부대 집회

담양 공수부대/ 광주 통합병원/ 광주 상무대 -2회 / 양평 기갑부대/ 포병59대대/ 1사단 본부/ 철원2사단 포병부대/ 1사단 포병연대본부/ 고창군부대/ 1사단신병교육대/ 1사단예하 독수리부대/ 21사단 66연대2대대/ 26사단본부/ 3군직할화학대대/ 2사단 신교대 -3회/ 경기도 연천군부대/ 21사단 66연대 3대대/ 706특공연대/ 경기도 운천 전방부대/ 포항 해군제9506부대/ 강원도 통천부대/ 육군항공단/ 경기도 춘천2개부대/ 경기도 연천부대/ 제주 지역사령부/ 해병기동특공부대/ 경기도 연천 35연대/ 26사단 신교대 -3회/ 경기도 포천부대/ 육군항공대대/ 26사단 7856부대 은하교회/ 57전차부대/ 울산 3935부대/ 7856부대 불무리교회/ 7765부대 762관리대/ 50사단 신교대 -2회/ 3653부대/ 2123부대/ 7501부대/ 국군부산병원/기드온군인교회/ 2646본부 중대 충성교회/ 보병7765부대 연대본부 임마누엘 교회/ 1117부대충성교회/ 7376부대 신병교육대/ 25사단70연대4대대 밀알교회/ 대구 2군사령부 무열대교회 -2회/ 밀물부대 천보교회/ 7317부대 사랑리교회 -2회/ 5152부대 소나무교회/ 39사단 충성교회/ 26사단포병연대228대대 오봉제일교회/ 7895 301부대 시온교회/ 26사단 9200부대 베다니군인교회/ 25사단 비룡부대수색대대 햇빛교회/ 26기보사기갑수색대대 기드온교회 / 7856부대 강병교회 -2회/ 5사단 수색대대 시온교회/ 5사단 7895부대 3대대 시온교회/ 35사단 105연대 백오교회/ 보병28사단81연대2대대 성도교회/ 35사단 제2632부대 충경교회 -3회/ 6116부대 659포병대대 소망교회/ 5사단공병대대 참빛교회/ 해성군인교회/ 8261부대 문바위교회 -2회/ 32사단 98연대 나눔교회/ 9287부대 도하군인교회 -2회/ 7525부대 낙원교회/ 새생명군인교회/ 국군광주병원/ 해산진 군인교회/ 5사단 신교대 상송교회 -6회/ 5198부대 번개교회/ 2756부대수기사 번개교회/ 28사단3357부대 송죽교회/ 9293 301부대 찬양교회/ 수기사사단 천하제일맹호교회/ 상송열쇠부대35연대 새소망교회/ 3878부대 수도기계화부대/ 2136부대 열쇠교회/ 6163부대 소망교회/ 00사단1여단 비호교회/ 5685부대 기드온교회/ 7895부대3대대 시온교회/ 9293부대4대대 임마누엘약대교회/ 8205부대 산돌교회/ 5198부대 맹호포병교회 -2회/ 36연대 2대대 십자군인교회/ 3287부대 은혜교회/ 5사단 포병연대 선교교회/ 8098부대 백오교회/ 7598부대 1대대 임마누엘교회/ 7895부대시온교회/ 9293부대 2대대 다락방교회/ 8265부대 205특공연대 백호교회/ 7895부대 안전교회/ 8539부대 3대대 햇빛교회/ 8567부대 2

대대/ 6163부대 공병3중대 복음교회/ 25사단 71연대 3대대 중앙상송교회/ 포항해병 교육훈련단 제2충무교회/ 2136공병대대 참빛교회/ 국군대구병원교회/ 8297부대 온누리교회/ 703특공연대 기드온교회/ 1118야전공병단/ 포항 해병대 충무교회 / 75여단 125기보대대 한마음교회/ 공병2대대 2136부대 참사랑교회/ 70사단 충성교회/ 25사단 72연대 미스바교회/ 육군하사관학교 소망교회 -4회/ 5사단 35연대 1대대 늘부른교회/ 5사단 7895부대 101부대 상송소망교회/ 32사단 98연대 나눔교회/ 9사단 29연대 3대대 여호수아교회/ 5사단 70연대 1대대 실로암교회/ 25사단 8567부대 상송교회/ 32사단 98연대 2대대 백령도 해병대 제6여단/ 5포병 여단 6야포단 내 6163부대 소망교회/ 논산훈련소 연무대교회/ 5사단본부 열쇠교회/ 9사단 신교대 -2회/ 25사단 36연대 3대대 십자군교회 / 백령공군기지교회/ 2사단 17연대 쌍호교회/ 육해공군 본부교회/ 25사단 70연대 4대대 밀알교회/ 25사단 70연대 2대대 신병교육대 사랑의 교회 - 2회/ 25사단 72연대 미스바교회/1936부대 야공단교회/ 30사단 52전차대대 한사랑교회/ 2사단 17연대 쌍호교회/ 25사단 72연대 2대대/ 5사단 새생명교회/ 논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2회/ 육군3포병연대 379대대 포성교회/ 68사단 포병연대 반석교회/ 22사단 수색대대/ 53사단 127연대 임마누엘교회/ 50사단 123보병연대 5대대/ 31사단 96연대 1대대/ 35사단 106연대 2대대/ 31사단 신병교육대/ 25사단 71연대 3대대/

나. 학교집회

충전대학교 - 3회, 중앙대학교, 연세대학교, 충청태안지역청소년집회, 서울신학교, 정신여자고등학교

다. 양로원집회

신아원, 제주도양로원, 모슬포제일교회양로원 성애경로원, 복음 양로원 - 2회

라. 고아원, 재활원집회

제남보육원, 고아원, 복지법인홍익보육원영아원, 애증원, 성산정신요양원, 진성원, 제주정신요양원, 한벨지움복지원, 성남보육원, 성보재활원, 서림복지원, 곡성삼강원, 목포공생원, 새별원, 인천신명보육원, 아산가나안우리집, 김제 영광의집, 사회복지시설 우리집, 사랑의 집

마. 교도소집회

순천교도소, 안양교도소-2회, 군산교도소, 육군

형무소, 전북소년원 정신요양원, 진성원, 광주소년원, 소록도 교도소, 충주교도소, 천안교도소, 진주교도소, 청주소년원, 국군교도소, 강릉교도소

바. 특별집회

칼빈음악제(칼빈대학교), 제1회선교음악회(YWCA 대강당), 제2회선교음악회(아가페종교음악실), 제3회선교음악회(중앙대학교대강당), 제4회선교음악회(온누리교회), 올림픽전도(주경기장, 올림픽공원 광장), 생활렐루아전도(88올림픽체조경기장), 제주도 함덕해수욕장집회, 치안본부, 강릉제2307전투 경찰대, 충남노회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울산, 부산지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사. 기타집회

소록도국립나병원, 기독교방송(CBS)-진리의말씀(매주 목요일 오후 5:30), 기독교방송(CBS)-잠깐 들어실까요(매주 목요일 오후 3:50), 기독교방송(CBS)-찬양의 꽃다발(매주 목요일 오전 7:10), 국민은행, 전북기도원, 변화산기도원, 흰돌산기도원, 전국목사장로수련회(경주코오롱호텔), 울산 동강병원, 미스바기도원, 외항선원 초청전도집회 -3회, 재한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전도집회

아. 교회집회

공향밴델교회(오세관 목사), 성남신광교회, 군산개복교회(김종석목사), 대전 성남제일교회(최태근 목사), 소록도신성교회(김두영 목사), 경기도, 강원도 순회전도시 지역교회 집회, 익산중앙교회(은준표 목사), 전주성광교회(오초 목사), 영암교회(이충래 목사), 소록도연합교회(김두영목사), 금삼교회(김승권 준목), 울산 목양교회(현광식 목사), 양구장로교회(김평목 목사), 옥토교회(김신성 목사), 제주서문교회(김언석 목사), 울산삼양교회(정연철 목사), 대구신일교회(최태근 목사), 부산청학교회(손기현 목사), 대구아멘교회(김명동 목사 -3회), 창원성주교회(이상열 목사), 서산양대교회(이연오 목사), 익산고현교회(최창훈 목사), 목포신화로교회(최기선 목사), 대광교회(강동원 목사), 전남 병영중앙교회(양성경 전도사), 평원교회(이상태 목사), 천안장로교회(이정호 목사), 봉동중앙교회(박종대 목사), 정읍마태교회(양병오 목사), 대구황금교회(박무용 목사), 안양교회(전순기 목사), 강원도 임곡교회, 순창협성교회(박성대 목사), 고흥 녹동제일교회(정충원 목사), 대전삼광교회(이현기목사), 전주송축교회(김응식 목사), 정읍정애교회(박창훈 목사), 소록교회(정윤성 목사), 울산태화교회(박신봉 목사 -3

회), 구로제일교회(강풍일 목사), 양구동면교회(김철환 목사), 영광교회(박광재 목사), 강남제일교회(이종희 목사), 신제주남교회(김재석 목사), 성남성지교회(정광수 목사), 경북 지동교회(백창남 목사), 태안성결교회(강형석 목사), 목포호남교회(김명남 목사), 장흥중앙교회(백영태 목사), 목포예손교회(최우식 목사), 하남장로교회(김무환 목사), 신도교회(김춘화 목사), 서산제일교회(여두중 목사), 전주반석교회(나성균 목사), 정읍남양교회(이삼규 목사), 포항대광교회(이호현 목사), 서울에덴교회(국용환 목사), 원주성광교회(남중수 목사), 부천갈보리교회, 충만교회(김승석 목사), 해성교회(송부근 목사), 이리임상교회(정이남 목사 -2회), 금산신평교회(선인순 전도사), 성림교회(김정구 목사), 신평교회(송길수 목사), 태안파도리교회(김중남 목사), 사랑교회(김중석 목사), 전주성복교회(이창남 목사), 동원교회(이수철 목사), 안양동성교회(박영연 목사) -2회, 대전대일교회(김기중 목사), 진주혜성교회(정남철 목사 -2회), 울산심양교회(권주식 목사), 대구대봉제일교회(이광호 목사), 흥성중앙교회(서진영 목사), 대산제일교회(이순상 목사), 목포상리교회(백영규 목사), 광주서문교회(리영숙 목사), 목포영락교회(송귀옥 목사), 태안성신제일교회(이종석 목사), 부안대동교회(오창환 목사), 대구성서중부교회(이동은 목사), 전주우아영생교회(정동철 목사), 부산광안제일교회(이주환 목사), 전주예본교회(최공훈 목사), 의항교회(이창섭 목사), 천안제일교회(이한우 목사), 온양갈보리교회(도승현 목사), 백령도화동교회(장봉춘 목사), 목양교회(이광복 목사), 예산우리교회(황용현 목사), 천안중부교회(문용권 목사), 인천동암교회(김종열 목사), 인천 무지개교회(박학원 목사), 백령중화동교회(전용류 목사), 삼은대길교회(이성규 목사), 모산제일교회(박재규 목사), 백령도중앙교회(홍성문 목사), 백령도 진촌교회(박용성 목사), 양의문교회(김갑용 목사), 남면교회(이건양 목사), 양구교회(김평목 목사), 강동교회(나황수 목사), 주문진제일교회(백종연 목사), 고성중앙교회(한남석 목사), 울산충현교회(이대수 목사), 금당교회(남규철 목사), 도리원교회(박종철 목사), 한마음교회(이승동 목사), 신전교회(오규환 목사), 약곡교회(박종봉 목사), 양우리교회(김해수 목사), 적성제일감리교회(최종운 목사)

해외 집회

제1차. 대만(2주간)

산지교회(대북시), 남산교회, 환산교회, 평지교회, 백천교도소, 화사대잔장원(장애인), 백천감옥소, 우화교회, 광복교회, 대동마난교회, 마카오병원, 대동신학교, 대동교회, 대북복음원

제2차. 미국(3주간)

엠마오교회, 온누리교회, 나성충현교회, 하시엔다교회, Radio Korea 방송국 출현, 디즈니랜드 야

외공연전도(- 이상 로스엔젤레스)

워싱턴장로교회, 워싱턴소망교회, 북부한인장로교회, 웨슬리안 리더이어먼트센터(미국인양로원), 헬로우쉽교회(미국인교회), 워싱턴 중앙방송국 출연(- 이상 워싱턴)

헤브론교회(2회 연속 집회), 미시간호수공원 야외 집회(- 이상 시카고)

안디옥교회, 아가페교회, 말씀교회, 불꽃교회, 뉴욕시 노방전도(- 이상 뉴욕)

비벌리마이너 양로원(미국인 양로원), 제일장로교회(2회 연속 집회), 미연방교도소(-이상 아틀란타)

하와이 양로원(미국인 양로원), 하와이교회, 에덴장로교회(3회 연속 집회), 와이키키해변 노방전도(- 이상 하와이)

제3차. 태국(2주간)

방콕 할렐루야교회, 방콕시 노방전도, 우돈 국민학교, 우돈헬로우쉽교회, 치안칸교회, 태국한인장로교회(교포교회), 방콕 오순절교회, B.D.I신학교, 방콕 글로리교회, 태국복음신학교, 와타나 여자고등학교

제4차. 필리핀(1주간)

마닐라장로회 신학교, 자유의섬교회, 마닐라한인연합교회(교포교회), 따기농구장, 마닐라교도소, 바공비안교회, 리잘교도소, 라스피냐스교회, 빠라냐게농구장

제5차. 일본(2주간)

요코하마미도리노교회, 동경내리국제교회(교포, 일본인 연합교회), 오사카양로원, 가와코시양로원, 오사카 주예수그리스도교회, 동경국립음악대

학, 오사카한인양로원, 동경야마데교회, 열매맺는 집 교회, 옥미원양로원, 오사카 기독교실업인회 초청만찬 공연(사카이 호텔), 빌리그래함 동경집회 야외전도협력, 오사카 송현교회(교포교회), 성민교회(교포교회), 효고개선한사마리아인의 교회, 시즈오카교회, 효고개무고전교회

제6차. 중국(2주간)

현지 사정상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없음

제7차. 홍콩(1주간)

홍콩제일교회

제8차. 싸이판(1주간)

커뮤니티스쿨, 싸이판 소년원, 예손장로교회(중국인, 조선족, 한인), 싸이판한인장로교회, 양로원, 예손장로교회(차모르족, 한인), 싸이판성결교회(중국인, 한인). 그레이스아카데미스쿨(유치원, 국교1. 2. 3. 4. 5학년, 중·고등학생—4회 연속 집회)

제9차. 괌(1주간)

리파오파크(야외집회), 마이크로네시아몰(쇼핑몰 중앙홀), 괌제일장로교회(교포교회)

제10차. 미국(3주간)

L.A삼성장로교회, 뉴욕안디옥교회, 흑인양로원, 뉴욕말씀장로교회, 호산나연합감리교회, 볼티모어제일연합감리교회, 뉴저지말씀장로교회, 애틀란타제일교회, 성령강림교회, 순복음애틀란타교회, 뉴욕대한교회, 후랭클린양로원, 유니벌시티가든양로원, N.M. Carroll 흑인 양로원

제11차. 캐나다(1주간)

CUMNER 양로원(유대인), 성산장로교회

제12차. 베트남 또는 필리핀 예정

갈보리선교회 유치장전도팀 집회목록

198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과 대전에서 3~5개 팀이 다음과 같이 토요일 오후시간에 경찰서 유치장을 전도해 오고 있다.

(서울)

동부서, 강남서, 성동서, 청량리서, 영등포서, 남대문서, 동대문서, 송파서, 노량진서, 관악서, 강동서, 노원서, 서부서, 북부서

(대전)

대전서, 대전서부서, 대전동부서

(기타 지역—순회 전도시)

원주서, 강릉서, 삼척서, 속초서, 광주서, 광주서부서, 여수서, 고흥서, 제천시

갈보리선교회 장애 인전도팀 집회목록

정신병자요양소, 성음교회 장애자의 집, 늘사랑교회의 장애자의 집, 임마누엘의 집, 하예성 사랑의집, 하남시 나그네의 집

* 현재는 서울 할렐루야의 집을 격주로 정기방문하여 실시중.



후원회원, 단원 가입신청안내

단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분은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본 회 사역을 위해
수요일 밤 훈련 시간(하절기 오후 7시 30분, 동절기 오후 7시)과 공휴일과 주일 저녁(월1~2회)의
전도사역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후원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자신이 책정한 후원회비를 본 회 MICR 용지를 사용하여 송금하면 됩니다.

(MICR 용지는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즉시 보내드립니다)

가입신청서

가입자명 : (교회는 교회명, 개인은 개인명, 단체는 단체명을 기입)
대표자명 : 직 위 :
가입자 또는 대표자 생년 월일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자택- 교회(단체)-
소속 교회명 :
소속 교단 :
후원회비 : 월 원(후원회원만 기록)

상기 본인은 귀 선교회가 규정하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귀회의(후원 회원, 단원)으로 가입을 신청합니다.

※희망란에 ○표 하세요

199 년 월 일

갈보리선교회장 귀하

갈보리 선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선교회장 : 김승석 서기 : 주정림 회계 : 윤정화 부회계 : 박지연 감사 : 김진문
이 사 회 : 이사장 : 박신봉 회계 : 김진문
실행이사 : 박신봉, 김중석, 정이남, 김중남, 박광재, 우종하, 오성환, 김승석
운영이사 : 박영언, 김명환, 천태근, 송부근

실행위원회 : 위원장 : 김승석
간 사 : 김철우(차량, 컴퓨터, 홍보), 박지연(행정), 김현철(기자재),
백주현(워십댄싱, 의상), 장항석(엔지니어)

후원회
차인자 외 여러분들

브라가의 소식들을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 김승석

편집인 : 김철우

편집위원 : 박지연, 백주현, 윤정화

인 색 : 진리와자유(T.268-3604)

발행 : 갈보리선교회 홍보위원회

■ 온라인번호

• 국민은행 825-21-0082-437(김승석) • 서울은행 27907-0386017 (김승석) • 상업은행 146-08-237723 (김승석) • 한일은행 138-163174-12-001(김승석)
• 제일은행 204-20-238677 (김승석) • 외환은행 100-19-14709-1 (김승석) • 농 협 017-12-077384 (김승석) • 체 신 부 013656-0025660 (김승석)